

엄청난 기술의 발전

고대의 역사에 대하여 공부하면 항상 드는 질문이 있다. 고대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런 기술들을 발전시켰을까? 그리스의 고대 역사도 그렇다. 그들은 아무 기술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현재의 그리스가 되었을까?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는지,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엄청난 기술을 발전시켜낸 고대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현재 우리는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고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전에 발전되어있던 유용한 기술들을 활용해 더 나은 기술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의 기초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훨씬 더 오래전 이 땅을 밟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 끝에 발견하고, 발명하고, 발전시켜낸 것이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최초의 기술을 발전시켰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구석기시대, 그리스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 아프리카에서 자신들이 먹을 식량을 찾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며 계속 떠돌아 다니다가 그리스 라는 땅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어디로 가야할지를 모른체로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생각하기만 해도 두렵고 나에겐 까마득한 일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식량을 찾기위해 끊임없이 모험하고 멈추지 않는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왔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겁쟁이가 된 것은 안전하고 평온한 곳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신석기시대가 되어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이뤄졌다. 영농기술이 그리스로 들어온 것, 지금 생각하면 농사하는게 뭐가 어렵다고, 그냥 씨 뿌려서 거두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특정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 먹거리가 생겨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까? 물론 그리스의 영농도 다른 지역과 접촉하면서 시작된것 이기는 하나, 그리스인들은 다른 지역에서 영농 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들 스스로 영농기술을 발전시켜나갔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동 생활을 하지 않고, 정착해 살면서도 우리가 먹을 양식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발상의 전환 이고, 상상치도 못한 일 일것이다.

왜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역사속에는 특정 인물들이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을까? 선사시대도 예외는 없다. 그 옛날, 모두가 동고동락하면서 살던 시기에 위계질서가 점차 생겼으며, 젠더간의 불평등이 생길 것일까? 인간의 본성은 내가 저사람보다 뛰어나고 싶고, 내가 가장 위에 서고싶고, 내가 저들을 다스리고 싶다는 교만의 욕구가 있다.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도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죄를 시작으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욕구를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뚜렷한 사실이다. 어느순간 권력의 독재가 일어나고, 어느순간 자본이 없는 사람은 낮아진다. 어느 시대에 가더라도 돈으로 사람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 권력을 얻기위해 너도나도 피흘리며 투쟁하고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어느 하나가 막강한 권력으로 모두를 통제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마음에 반역의 의지를 품고 있을것이고,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산다고 해도 누군가는 타인을 멸시하고 있을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은 그렇게 많은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발전시키지 못했고, 점점 더 더럽고 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으로써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한 팩트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겠다. 하지만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의 시점으로 이 역사를 공부할 때, 문명은 갑자기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난 근원지가 아닌 인간이 창조되고 많은 시간이 흘러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민족은 세상에 흩어지고 나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다. 내가 알고있는 팩트로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세상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흩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를 공부할때는 하나도 모르는 조상들이 기적적으로 기술을 발견했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겠다. 물론 위의 내가 한 이야기와는 모순되는 말 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인간은 내가 남보다 뛰어나보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죽을만큼 노력하는 생명체이고, 창조주와 같은 위치에 서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라는 교만함으로 하늘과 맞닿은 바벨탑을 만들어냈다. 그런 기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피라미드라는 큰 건축물을 지었을까 신기해 하지만 나는 그들이 바벨탑을 지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축조술도 없던 시대에, 하늘과 맞닿은 탑을 어떻게 만들었나?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바벨탑이 그저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일까? 하지만 바벨탑 사건은 엄연히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신화가 아닌 실화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끝으로 고대의 역사를 공부할 때 성숙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공부해야겠다. 아직 고대그리스사의 배경까지 밖에 공부를 안했지만 이 시기에 대해 배울때 나오는 진화론적인 관점들과 증거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 같다. 좀 더 확고한 관점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잡기를 바란다.